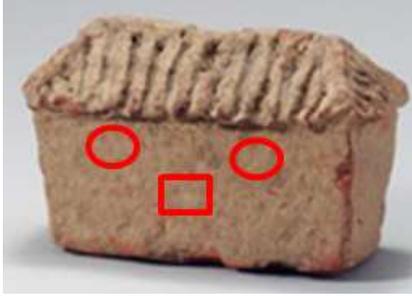


『차곡차곡, 어린이박물관 보물찾기!』

활동지 답과 설명

◇ 주거 - 딱딱딱, 삶의 보금자리

1. 고구려집의 창과 문을 그려보아요.



- 정답 : 창과 문 그리기

- 이것은 고구려시대 ‘집모양토기’라는 유물이에요.

어린이박물관에는 크게 만들어진 고구려집이 있어서 직접 들어가서 구경을 해 볼 수 있어요.

창과 문이 우리 친구들 집보다 커요? 작아요?

네, 작아요. 고구려는 추운 북쪽 지방에 있는 나라예요.

고구려 사람들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생

각해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창과 문을 만든 것이예요. 집을 지을 때 창과 문을 작게 만들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의 집에는 온돌의 일종인 쪽구들도 있어서 방안을 덥힐 수 있었어요.

2. 가장 마음에 드는 수막새를 그려볼까요?

- 위치 : 주거 영역의 기와 만들기 체험물 및 벽면의 수막새 인쇄물

- 정답 : 수막새 그리기

- 수막새는 기왓골 끝에 붙이는 기와를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수막새에 연꽃, 사람 얼굴 등 여러 가지 문양을 넣어서 집을 더욱 아름답게 꾸몄어요. 또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도깨비 얼굴 모양 기와로 지붕을 장식했어요.

3.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 정답 : 곡식의 껍질을 벗길 때

- 갈돌과 갈판은 열매나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드는데 사용한 도구로, 돌로 만들어 졌어요.

4. 나는 누구일까요?

- 정답 : 끌, 자귀, 톱

- 한옥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야 해요. 우리 어린이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는 도구 중에는 톱, 자귀, 끌이 있어요.

끌은 망치로 한쪽 끝을 때려서 나무에 구멍을 뚫거나 걸면을 깎고 다듬는 데 쓰는 도구

예요. 자귀는 나무를 매끄럽게 다듬는데 쓰고, 톱은 나무나 쇠붙이를 자르는데 사용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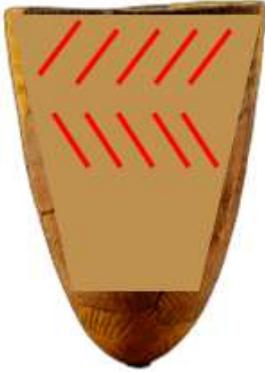
5. 이 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정답 : 움집

- 움집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던 반지하집이에요. 땅을 파서 생긴 벽을 이용하여 추위와 바람을 피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땅을 파고 둘레에 기둥을 세워 이엉(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해 엮은 짚) 을 덮어 지붕을 만들었어요. 움집 안에는 음식을 만들거나 집을 따뜻하게 하기 화덕을 설치하였답니다.

◇ 그릇 - 모락모락, 밥을 담는 그릇

1. 그릇에 무늬를 그려보아요.



- 위치 : 가마 안
- 이렇게 그릇 겉면에 빗살 같은 무늬가 촘촘하게 새겨진 것을 빗살무늬토기라고 불러요. 아마 끝이 날카로운 도구로 무늬를 새겼을 거예요. 처음으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던 신석기시대에는 바닥이 뽕족하고 겉면에 빗금이 그려진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했어요. 이 때 사람들은 강이나 바닷가 근처에 살았는데, 이곳의 땅은 모래였어요. 모래 바닥에 그릇을 잘 세워두기 위해서 끝이 뽕족한 그릇을 만들었지요.

2. 나는 누구일까요?

- 위치 : 가마 안
- 정답 : 무늬 - 없다 / 모양 - 허리가 불룩하고 그릇 바닥이 평평하다
- 이 그릇의 이름은 민무늬토기예요. 민무늬토기를 만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산이나 언덕 쪽에 살았어요. 산이나 언덕 부근은 땅바닥이 평평해요. 그래서 바닥에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릇의 바닥도 평평하게 만들었답니다.

3. 빈 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 정답 : 단단, 물레
- 그릇은 높은 온도에서 구울수록 더욱 단단해져요. 빗살무늬토기보다는 청자나 백자가 더욱 단단하고 물을 부어도 새지 않아요.
- 그릇을 만들 때 모양을 일정하게 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물레라고 해요. 물레는 그릇을 만들 때 쓰는 도구로 삼국시대부터 사용했어요. 돌아가는 물레에 반죽을 올려놓고 움직이면 회전력 때문에 그릇의 모양이 일정하고 균형이 잡히게 돼요.

4. 가마 안에 있는 고려청자에는 어떤 무늬가 들어 있나요?

- 정답 : 구름, 학
-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자상감구름학무늬매병’이라는 이름의 그릇이에요. 부드러운 곡선 모양도 관찰하고 구름과 새 등의 무늬도 찾아봤나요? 넓은 하늘을 배경으로 흰 구름이 떠다니고 학이 너울너울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고려청자는 아름다운 모양과 특유의 색 때문에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진 그릇이에요.

5. 옛날에 땅을 가는 데 쓰던 농기구는 무엇인가요?

- 정답 : 따비
- 첫 번째는 갈돌과 갈판, 두 번째는 반달돌칼, 세 번째는 따비예요. 갈돌과 갈판은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낼 때 쓰는 도구이고, 반달돌칼은 이삭을 따는 데 썼어요. 따비는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던 농기구에요. 요즘에는 트랙터나 경운기로 땅을 갈지요.

◇ 옷 - 알록달록 고운 우리 옷

<p>1. 무엇을 펼친 모습일까요?</p>
<p>- 정답 : 금관 - 금관은 왕이나 귀족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썼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빛깔이 아름답고 멋지지요? 금귀걸이나 금반지는 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거예요. 요즘도 우리 어머니들이 금 귀걸이나 금반지를 하고 다니시지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런 장신구들을 하고 다녔습니다.</p>
<p>2. 백제의 관꾸미개는 무엇을 닮아 있나요?</p>
<p>- 위치 : 옷 영역의 서랍 - 정답 : 불꽃 - 관꾸미개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모에 꽃았던 장식을 말해요. 이 관꾸미개는 왕의 관꾸미개로, 마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p>
<p>3. 물고기의 비늘 모양을 보고 만든 옷은 무엇일까요?</p>
<p>- 위치 : 택견 옆 철갑옷 패널 - 정답 : 철/비늘 - 물고기의 비늘 모양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옷은 비늘 갑옷입니다. 갑옷은 전쟁에서 무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옷이에요. 처음에는 가죽이나 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철로도 옷을 만들 수 있었어요. 몸의 곡선에 맞게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구부려서 연결하였고,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하는 기마병(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들이 주로 입었어요. 철갑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을 다루는 뛰어난 제작 기술이 있어야 가능했어요.</p>
<p>4. 무늬를 찾아볼까요?</p>
<p>- 위치 : 고구려 대행렬도 영상 옆 패널 - 정답 : 점무늬 또는 물방울무늬 - 고구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우리는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이 입은 이 점무늬 옷은 몇 천 년 전에 인도에서 유행을 하여 고구려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먼 인도의 유행이 고구려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고구려를 포함한 삼국의 기본 옷은 저고리와 바지, 두루마기로 오늘날의 한복과 같아요. 여자들은 바지 위에 치마를 덧입기도 했어요.</p>
<p>5. 빈 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p>
<p>- 정답 : ③ 비단 - 전시실에는 있는 신라와 백제 시대 옷을 입어봤나요? 이 옷은 비단으로 만들어졌는데, 비단은 광택이 있고 부드러우며 구김이 잘 가요. 귀한 옷감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입었어요. 삼베는 삼나무의 껍질에서 실을 내어 만든 것으로 손으로 만지면 거칠거칠해요. 송송 구멍이 많아서 더운 여름에 입기에 좋은 옷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삼베옷을 많이 지어 입었어요. 면은 목화솜으로 실을 내어 만든 천으로, 구김이 잘 가지 않고 땀을 잘 흡수해요. 서민들이 평상시에 많이 입은 옷이에요.</p>

◇ 전쟁 - 무기와 무사들

<p>1. 무기를 만드는 재료는 시대에 따라 달라요. 어떤 순서로 변화되었나요?</p>
<p>- 정답 : 주먹도끼 → 청동검 → 철갑옷</p> <p>- 전쟁을 할 때 쓰는 도구를 무기라고 해요.</p> <p>구석기와 신석기시대에는 돌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고, 그 후 청동기시대에는 구리에 주석을 섞어 만든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청동보다 훨씬 단단한 철을 자유롭게 다루게 되는 철기시대에 와서 무기, 농기구, 공구 등 다양한 도구들을 철로 만들었어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도구도 점차 튼튼하고 정교하게 변했어요.</p>
<p>2. 흰 말을 탄 사람이 사냥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p>
<p>- 정답 : 사슴</p> <p>- 수렵도에 가서 사진을 찍어 봤나요? 수렵도는 고구려시대 사람들이 무덤 벽에 그린 그림을 말해요.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힘차고 씩씩해 보이지요? 말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뒤돌아서 활을 쏘는 사람을 찾았나요? 말을 탄 채로 목표물을 맞추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자세를 했는데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네요. 이 사람은 사슴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굳세고 용맹한 고구려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p>
<p>3. 반구대 암각화에서 동물들을 찾아볼까요?</p>
<p>- 정답 : 고래, 거북, 사슴, 멧돼지, 호랑이 등</p> <p>- 바위그림을 암각화라고 하는데, 선사인들이 자신의 소원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커다란 바위 등 성스러운 장소에 새긴 그림이에요.</p> <p>경상남도 울산의 바닷가 마을에서 발견된 이 바위 그림에는 고래, 거북, 사슴, 멧돼지, 호랑이 등 총 20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p> <p>우리 친구는 바위에 어떤 소원을 그려 넣고 싶나요?</p>
<p>4. 고리자루 칼에는 어떤 장식이 있나요?</p>
<p>- 정답 : 봉황, 용</p> <p>- 고리자루 칼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지녔는데, 신분에 따라 고리의 장식이 달라요. 왕은 용장식을, 귀족들은 봉황 장식이나 세잎고리장식, 등근 고리 장식을 했어요.</p>
<p>5. 나는 누구일까요?</p>
<p>- 위치 : 아차산 보루성 모형</p> <p>- 정답 : 보루</p> <p>- 보루는 적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굳건한 군사 시설로, 작은 성을 말해요.</p> <p>고구려가 한강 지역에 세운 아차산 보루 중 제 4보루는 군사가 100여 명쯤은 넉넉히 머물 수 있을 만큼 커요. 보루 안에는 무기를 다듬는 대장간과 물 저장고, 지휘관과 참모들이 작전을 짜는 본부 등 여러 공간이 있었다고 해요.</p>

◇ 음악 - 마음과 영혼의 소리

<p>1. 다음 중 의기는 무엇일까요?</p> <p>- 위치 : 음악 영역 패널 및 제사장 패널</p> <p>- 정답 : 4개 / 쌍두령, 청동검, 팔주령, 청동거울</p> <p>-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제사장은 성스러운 의기들을 몸에 지내고 신성한 의식을 시작했어요. 허리에는 청동검을 찬 제사장은 쌍두령, 팔주령 등의 청동방울을 흔들며 하늘의 소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목에 건 청동거울로 태양을 비추면 찬란한 빛줄기가 퍼져서 더욱 신성함이 커졌어요.</p>
<p>2. 나는 누구일까요?</p> <p>- 정답 : 제사장</p> <p>- 제사장은 제사를 이끄는 어른을 말하며, 사람들의 소원을 하늘에 전하고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사람들은 신의 뜻을 알고 전해주는 능력을 가진 제사장을 신처럼 여기고 존중했어요.</p>
<p>3. 어떤 악기가 더 많은 줄을 가지고 있나요?</p> <p>- 정답 : 가야금은 12줄이고, 거문고는 6줄이에요.</p> <p>- 가야금은 오동나무 공명판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12줄을 세로로 매어 만들었어요. 손가락으로 뜯어서 소리를 내는데, 맑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국악기에요.</p> <p>거문고는 오동나무와 밤나무를 붙여서 만든 울림통 위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6줄을 매고 술대로 쳐서 소리를 내요. 소리가 울림이 있고 깊어서 예로부터 학문과 덕을 쌓은 선비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악기에요.</p>
<p>4. 백제금동대향로에 악사는 몇 명 있나요?</p> <p>- 정답 : 5명</p> <p>- 백제금동대향로의 가장 윗부분에는 봉황이 있고 그 바로 밑에는 다섯 명의 악사가 있어요. 악사들은 배소, 통소(피리), 완함, 북, 현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p> <p>백제금동대향로는 1993년도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제사를 지낼 때 쓰던 향로예요. 향을 피워 냄새를 없애고 의식의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었어요.</p> <p>백제금동대향로는 상상의 동물인 봉황과 용을 비롯해서 다섯 명의 악사, 참선하는 사람, 여러 동물, 자연의 모습 등이 담겨 있어요.</p> <p>향로에는 봉황의 가슴과 뚜껑에 열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향을 피우면 마치 산 사이사이에서 연기가 흘러나오고 맨 위의 봉황이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p>
<p>5. 거문고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p> <p>- 정답 : ③ 왕산악</p> <p>- 고구려 장수왕 시절, 큰 잔치에 음악가인 왕산악은 새로 만든 악기를 들고 와서 연주를 했어요. 중국이 자랑하는 칠현금과는 전혀 다른 고구려 사람의 씩씩한 기상을 담은 소리가 울려 퍼지자, 검은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오더니 연주에 맞춰 춤을 추었어요.</p> <p>사람들은 검은 학을 춤추게 한 고구려의 악기라는 뜻으로 ‘거문고’ 라고 불렀답니다.</p>